

# 「미국 순방 · 중소기업 대표단」 파견 결과 보고

2023. 5.

**KBIZ** 중소기업중앙회

# 1

## 출장 개요

### □ 기본 개요

#### ○ 추진목적

- 한미동맹 70주년에 따른 양국 경제인 간 소통 및 경험 확대 논의
- 미국 기업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과제 발굴

○ 출장기간 : 2023. 4. 22.(토) ~ 2023. 5. 1.(월) / 8박 10일

○ 출 장 지 : 미국 뉴욕, 워싱턴, 올랜도

○ 출 장 자 : 중앙회장, 회장단(8), 실무자(4) 총 13명

※ 세부 내용은 3페이지 <출장자 명단> 참고

### □ 일 정

날짜	내 용
4.22(토)	<출국> 인천 - 뉴욕 19:40-21:00, 14h20 KE085
4.23(일)	현지일정
4.24(월)	(15:30) 한인기업(인코코) 탐방
4.25(화)	<이동> 뉴욕(05:30出) - 워싱턴
	(11:45) 한미 첨단산업 포럼 (12:30) 한미동맹 70주년 오찬
	(18:00) 글로벌 중소기업인의 밤
	(19:00) 국립암센터와 간담
4.26(수)	(10:00) 백악관 국민 환영행사 참관
	(19:00) 국민 만찬
4.27(목)	<이동> 워싱턴 - 올랜도 (13:00) 국민 오찬
4.28(금)	(10:30) 한국일보 인터뷰
	(11:00) 미주한상총연 MOU 및 한상대회 조직위원회 간담
4.29(토)	(15:00) 한인기업(코러스 오키드) 탐방
4.30(일) ~ 5.1(월)	<귀국> 올랜도 - 애틀란타 09:10~10:43, 1h33 DL1504 애틀란타 - 인천 12:25~16:55+1, 15h30 KE036

□ 참가자 명단(13)

구분	직위	성명	주요사항
1	회장	김기문	- (주)제이에스티나 회장
2	수석부회장	권혁홍	-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신대양제지(주) 회장
3	부회장 (6)	김신길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주)아세아텍 회장
4		손인국	- 안산비철금속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이구산업(주) 회장
5		최우각	-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 - (주)대성하이텍 회장
6		이한욱	-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주)월드이노텍 대표이사
7		이재광	-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주)광명전기 회장
8		한병준	-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유니아이텍(주) 대표이사
9	이사	곽인학	-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 (주)광스틸 대표이사
10	실장	김철우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11	부부장	강지철	- 중소기업중앙회 비서실
12	과장	임경민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13	사원	유혜선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 □ 4월 24일(월)

## (1) 혁신기업 인코코 탐방

- 일 시 : 2023. 4. 23.(월) 15:30
- 장 소 : 자유민주당 본부 5층
- 참석자 : 김기문 중앙회장, 박화영 인코코 대표, 회장단(8), 실무자(3)
- 주요내용
  - 미국 내 한인 혁신기업인 인코코 기업 탐방
  - 해외진출 사례 공유 및 추후 리더스 포럼 등 국내 중소기업인 대상 경험 공유 등 논의
- 회사 개요 : 인코코 (INCOCO) ※ 대표자 박화영
  - 업종/품목 : 뷰티 / 붙이는 매니큐어 \* 매니큐어 필름 (부착 후 드라이)  
(대표 브랜드 : 칼라스트리트)
  - 규 모 : (매출액) 약 2천억원('19년) / (직원) 500여명
  - 연 혁 : '88년 설립('86년 특허 출원 / '05년 제품 출시)



## □ 4월 25일(화)

### (1) 한-미 첨단산업포럼

- 일 시 : '23. 4. 25.(화) 11:45~12:50
- 장 소 : 미국상공회의소 그레이트홀(1층)
- 참 석 자 : 양측 정부 및 경제계 총 180명 내외
  - (韓) VIP, 기업인(중앙회장, 회장단 등) 및 정부인사 90여명
  - (美) 수잔 클락 미국상의 회장,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및 기업인 90여명
- 주요내용
  - 양국 첨단기술 동맹 재확인 및 기업인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 논의



### (2) 한미동맹 70주년 감사 오찬

- 일 시 : '23. 4. 25.(화) 11:45~12:50
- 장 소 : 리츠칼튼 워싱턴 D.C볼룸
- 참 석 자 : 한미동맹 70년의 과거·현재·미래 상징 인물 등 300여명
  - \* 본회, 최우각 부회장 참석





### (3) 글로벌 중소기업인의 밤

- 일 시 : '23. 4. 25.(화) 17:00~20:00 ※ 만찬 불참
- 장 소 : 콘래드 워싱턴D.C 그랜드볼룸(2층)
- 참 석 자 : 중앙회장, 중기부 장관 등 한-미 중소기업인 60명 내외
- 주요내용 : 수출계약·MOU 체결식(사전행사), 개회식, 기업 우수사례 발표, '23년 세계 한상대회 홍보, 만찬 등



### (4) 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 미국 진출 위한 국립암센터와 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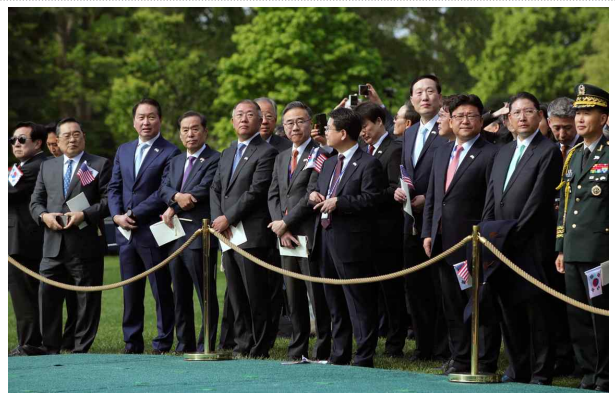
- 일 시 : '23. 4. 25.(화) 19:00
- 장 소 : 워싱턴 D.C 인근(한강)
- 참 석 자 : 중앙회장, 회장단(7), 국립암센터 원장 등 11명
- 주요내용 : 바이오·의료기기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 방안 논의



## □ 4월 26일(수)

### (1) 백악관 환영 행사

- 일 시 : 2023. 4. 26(수) 10:00~10:30
- 장 소 : 미국 백악관 잔디광장
- 참 석 자 : 양국 정상, 경제사절단 중 88명 등
- 주요내용 : 군악대 연주, 양국 국가 연주, 양국 정상 연설 등



### (2) 국민 만찬

- 일 시 : 2023. 4. 26(수) 19:00~23:00
- 장 소 : 백악관 State Dining Room
- 참 석 자 : 양국 정상, 양국 기업인 등





## □ 4월 27일(목)

### (1) 국민 오찬

- 일 시 : 2023. 4. 27.(목) 13:00~15:00
- 장 소 : 미국 국무부 Benjamin Franklin Room
- 참석자 : 윤석열 대통령, 해리슨 美부통령, 블링컨 美국무장관 등  
※ 본회, 손인국, 최우각 부회장 참석



## □ 4월 28일(금)

### (1) 미국 올랜도 한국일보 인터뷰

- 일 시 : 2023. 4. 28(금) 10:30
- 장 소 : Drury Hotel
- 대 상 : 김기문 중앙회장, 박요셉 한국일보 애틀랜타 발행인(편집국장)

**한국일보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ATLANTA

HOME NEWS 지역 뉴스 한국 뉴스 미주 한인 글로벌 뉴스 사실·칼럼 자유개시판 베품시장 전자신문 Q 검색

### <특별 초대석-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상대회 참가 50개 기업이 실질적 성과 내도록 준비하겠다"

April 28, 2023 2:56 PM

경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일보 특종

729만 한국 중소기업 총괄하는 단체 수장  
미주한상총연과 미국진출 지원 업무협약  
K-BIZ관 별도 설치하고 시음, 시연에 중점

중소기업 대표단을 이끌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바쁜 일정을 소화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사진) 회장이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 2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드루리 플라자 호텔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황병규, 이하 미주한상총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오후 10월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세계한상대회 명예대회장으로 위촉됐으며, 미주한상총연과 한상대회 중소기업 대표단 파견과 양 기관 간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 지원을 위한 협력 노임을 지켰다.

※ 링크 : <https://higoodday.com/news/987257>



## (2) 미주한상총연 MOU 및 한상대회 조직위원회와의 간담

- 일 시 : 2023. 3. 18.(토) 17:30
- 장 소 : Drury Plaza Hotel / Coral A room
- 참 석 자 : 28명
  - (韓) 김기문 중앙회장, 부회장(7), 홈앤쇼핑 본부장김철우 국제통상실장 등 11명
  - (美) 황병구 조직위원장, 노상일 운영본부장 등 17명
- 주요내용 : ① 한국 中企 미국진출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② 21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논의
  - 김기문 회장(명예대회장) 위촉
  - 21차 한상대회 계획(안) 발표 (미주한상총연)
  - 중소기업 50개사 파견 및 KBIZ관 설치 논의 등



**붙임****제21차 한상대회 개요**

## □ 행사개요

- 사업명 : 제21차 세계한상대회
- 기간 : 10. 11.(수) ~ 14.(토) (4일간)
- 장소 :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
- 규모 : 약 400여개사 참여 예정
- 주최/주관 :
  - 주최 : 미주한상총연, 재외동포경제단체
  - 주관 : 재외동포재단, 미주한상총연, OC상의, 매일경제신문(MBN)

**<제21차 세계한상대회 연계 상담회>**

- 지원기업 수 : 약 50개사(~5.19) \* 식품, 뷰티, 미용 등
- 주요내용 : 한상대회 內 'KBIZ 단체관' 구성 및 참가 지원
  - KBIZ관 운영 : 본회, 홈앤쇼핑 등 50개사
  - 부대행사(홈앤쇼핑) : 뷰티메이크업쇼, 푸드쇼, 라이브커머스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회선임차료 등 상담장 구성

구분	제공 내역
기본부스 1개 (10×10, 3m X 3m)	○ 인포데스크 1개(로고 포함), 미팅테이블 1개, 의자4개, 바스툴1개, 쓰레기통 1개, 카탈로그 홀더, 뒷배너 '8x'4

## □ 프로그램

일시	10.11(수)		10.12(목)		10.13(금)		10.14(토)
주제	인프라 스트럭처		무역, 운송, e-커머스		의료, 뷰티, 웰빙		문화
키워드	스마트 시티, 환경기술		스마트 운송, 쇼핑, POS		스마트 헬스, 뷰티, 홈		K-컨텐츠
주요내용	전시회 상담회 개회식	기자회견 운영위 YBLF포럼	전시회 상담회	VC포럼 세미나	전시회 상담회	스타트업 경연대회 포럼	포럼 세미나
	개회식 환영만찬	문화행사 단체별 만찬					폐회식 환송오찬

□ 4월 29일(토)

(1) Korus Orchid 시찰

- 일 시 : 2023. 3. 18.(토) 17:30
- 장 소 : Korus Orchid
- 참 석 자 : 김기문 중앙회장, 부회장(7), 미주한상총연 등

<관련 내용>

중소기업뉴스

2023년 05월 08일 월요일 003면 종합

“호접난 불모지 美 시장에 도전... 4000만달러 수출 꽃피울 것”

인터뷰 | 황병구 미주한상총연 회장

**지역규정·재배 노하우 등 난제 산적  
10여년 노력 끝 수출진전기지 안착**  
**“코리아 가든센터 500곳 설치 추진  
농업실비·용품 전진기지 만들 것”**  
**미국 78개 도시 지역한인상의 총괄  
10월 세계한상대회 성공개최 전력**  
 **명예대회장으로 김기문 회장 위촉  
“중기중앙회 손잡고 축제 의 장 열 것”**

“향상의 노하우와 미주한상총연의 네트워크를 통해 알 기만 협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활성화와 한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황병구 미주한상총연의소총연회(미주한상총연) 회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올랜도에서 유석일 대동영의 미국 국민방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단을 맞이했다.

이날 미주한상총연과 중기중앙회는, 한국 중소기업 미국 진출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특히 올해 10월 국내에서 열린다던 세계한상대회가 최종도쿄(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개최된다. 그리고 한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상대회 조직위원회의 미주한상총연을 중심으로 한사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7개 중기중앙회점용 명에 대해 앞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황병구 회장은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오렌지카운티 에디나인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세계한상대회’를 위한 제비꽃 축제와 함께 ‘제비꽃 축제’를 주관한다. 황병구 회장은 미국 50개 주 내 78개 도시에서 설립된 지역 한인상공회의소를 총괄하는 수장이자, 명실상부한 미국 내 최대 규모 한인 경제단체를 이끈다.

제비꽃축제는 오렌지카운티 행사들 시작으로 각국으로 해외에서 세계한상대회를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10월로 예정된 것차 대회는 그 기쁨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라고 할 수 있다.

황 회장은 “우리가 처음 여는 해외 행사인 만큼 오라에서는 이렇듯 대회를 열어야 하지만 그 노하우를 축적해 다른 국가 개최 단계에도 전수할 것이라며 ‘제비꽃 축제’의 기쁨을 만끽하는 생각으로 화제를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단체의 수장인 황병구 회장은 미국으로 건너온 것은 지난 2001년.

경북 칠곡 출신인 황 회장은 2001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도 이민해 19년째 호접난 농사를 짓고 있다. 10여년째(미국) 크기의 난 농장 ‘코러스 오케이드(Korus orchid)’를 운영한다.

2008년 중앙농림리더십협회의소총연회(소총연)를 창립한 뒤 회장직을 맡았고, 2018년 미주한상총연의소총연회(소총연)의 이장직을 지냈던 회장을 맡고 있다.

미국 올랜도에서 외국으로의 30분을 차로 달리는 황병구 회장의 광활한 하우스 농장이 나타난다. 황 회장이 경작하는 호접난 재배도 미국 내에서도 유망하다. 황 회장은 지난 10여 년에 대해서는 “자라가 안정해는 최고의 전무하다. 이곳에서 재배는 난은 플라타너스, 올드프 등대 대형 유류제인에 남는다.

“78개 도시를 불모의 미국시장에서 호접난 대수출의 열정을 품고 임지전통 인문로 확산과 함께 여기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올랜도에서 호접난 농장을 운영하다가 2001년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 올랜도에서 사기회분이 단은 호접난을 일련으로 처음 수출하기도 한 그는,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시로 수출 규정에 대해 트릭을 잡는 일본과 경쟁 때 반쪽 수입만 있는 중국보다는 미국 시장에 주목했던 것이다.

한국인의 눈을 가채다가 미국에 키워 현지에서 팔자. 생각을 하게 된 것. 이를 위해 농산수출농업조합이라는 영농조직을 설립했다.

“한국 난을 키다가 미국에서 키워서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에 팔자고 조합을 만들었어요. 농협부와 올랜도 조합이 동행해서 수출 전진기지로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농장을 만들 거지요.” 올랜도와 조합은 호접난 미국 수출을 위해 사업비 8억여원을 들여 올랜도에서 사업비를 설립하고 3000평 규모의 수출전진기지 조성사업에 추진했다. 그 결과, 2001년 4월에는 올랜도 북구 농산조합에서 1년 농장 개업 호접난 농장도 3년 뒤가 미국으로 처음 수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열이 도 잘 안되는 광범한 농민이 그가 농림부와 올랜도 시장을 살펴보고 조합의 투자까지 이루어져서 미국으로 오는 10명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호접난을 들여왔으나 가격 경쟁력 확보는 어려움이 심은 채 번진지 않았다.

뿌리깊은 흙을 완전히 제거하고 미국에 수출하다 보니 손실이 30~40%에 이르렀다. 호접난이 15~20원 가까이 인 이동시간 동안 양명분 부족으로 마르거나 미국에서 옮겨 심은 키도 생육장애



황병구 미주한상총연 회장이 미국 올랜도에 위치한 자신의 코러스 오케이드(Korus orchid) 농장(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을 방문하고 있다.

가 생겨 생존률이 낮았던 것. 결국 그는 대만으로 부터 난을 수입하기도 했다. 대만과 미국 간에는 식물을 화물에 들여올 수 있는 협정이 체결된 있었다.

황 회장은 대만 호접난을 들여오면서도 아름다운 타종양사감과 주머니사감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이 노력해 뛰어들었다.

“농산수출농업조합이 주머니사감 제형화된 시장이 있습니다. 현직수 대사와 농림부 소속으로 디자인에 따르면 김기문 농부만이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호접난 김기문에게 해설을 받도록 디자인과 김기문 농부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황 회장의 권유에 김기문 농부면과 후임인 박병호, 귀재한 농부면은 호접난 길에 분체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섰다. 실여년경이 걸린 왕 회장 노력과 우리 품종의 도움으로 드디어 2007년 양국간이 화물비 들여올 수 있는 협정이 체결됐다.

이후 통해 한국 호접난이 미국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하게는 왕 회장의 흠에 걸림을 더 나가실 수 있었다. 2009년 10월 제1회 김기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LA와 플로리다에 호접난 수출 전진기지로 농장을 설립해 경쟁적으로 부지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살아남은 농장은 워싱턴이 유일하다고 시시하다.

황 회장은 “호접난을 통한 한류의 확산이라는 또다른 꿈꾸고 있다. 2004년경 (한국)으로 미국에 건너왔을 때처럼, 미국 전역에 코리아 가든센터를 설립해 한국 호접난의 아름다움을 미국인들에게 알리겠다는 것.”

“이제 가든센터는 단순한 화훼 판매소가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를 잇는 한류, 가든센터를 위한 실사 작업과 판매 등이 관련된 모든 자재와 비품을 전할 한국에서 수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의 농장이 한국 호접난의 미국수출 전진기지가 될 것처럼, 가든센터가 국내 농업실비·용품 수출의 전진기지도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다.

해외에서 처음 개최되는 한상대회의 성공, 한국 호접난 수출 4000만달러 달성, 10여년 가든센터 500곳 설치 등 그는 2023년 목표를 다짐하고 있다. 미주 한상총연의 미국 시장 진출에도 힘을 보탬 생각이다.

“중기중앙회가 한상대회 준비에 큰 힘이 돼 주 있습니다. 미주 한인 상인들도 중소기업협회와 함께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병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 미국 올랜도에서 미주한상총연의소총연회(미주한상총연) 회장 황병구(왼쪽)와 김기문(오른쪽) 회장을 만나 협약을 체결했다. 김기문은 중소기업중앙회(소총연)의 소총연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달 28일 황병구 미주한상총연 회장(오른쪽)이 소총연회(소총연)의 소총연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소총연)의 소총연회장을 만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

2023년 04월 27일 목요일 018면 산업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제약 분야 유망 중기 지원”

#### 美서 K바이오 활성화 간담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의료 분야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5일 워싱턴에서 국립암센터와 ‘바이오·의료 기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에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8명의 중소기업 대표단과 △서훈관 국립암센터 원장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관련 분야 전시회·상담회 기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서훈관 국립암센터 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여섯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바이오·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업 파견 등 국내 바이오 및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저소득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족 대상 암예방 검진 지원 등 사회공헌을 위한 협력도 지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K-바이오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양 기관이 협력해 의료기기·제약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재웅 기자

중소기업뉴스

2023년 05월 01일 월요일 003면 종합

## 경제사절단 절반 이상 중소기업... 세계 최대시장 진출 교두보 구축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김기문, 백악관 주위 국빈만찬 참석  
글로벌 申主人의 밤 행사에도 자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기간 중 약 60여 차례에 이르는 투자유치 성과와 더불어 김기문 중소기업 대표단도 대표단에서 84개사가 포함된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경제사절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22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밤이 경제사절단에는 중소기업 64개사가 포함된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중소기업 대표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지난 26일(현지시간) 밤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이번 방미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20여 개국에 이르는 122개 국가를 방문하는 대규모 국빈방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중소기업 대표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지난 26일(현지시간) 밤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김기문, 백악관 주위 국빈만찬 참석

글로벌 申主人의 밤 행사에도 자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기간 중 약 60여 차례에 이르는 투자유치 성과와 더불어 김기문 중소기업 대표단도 대표단에서 84개사가 포함된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경제사절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22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밤이 경제사절단에는 중소기업 64개사가 포함된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중소기업 대표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지난 26일(현지시간) 밤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이번 방미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20여 개국에 이르는 122개 국가를 방문하는 대규모 국빈방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중소기업 대표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지난 26일(현지시간) 밤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김기문, 백악관 주위 국빈만찬 참석

글로벌 申主人의 밤 행사에도 자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기간 중 약 60여 차례에 이르는 투자유치 성과와 더불어 김기문 중소기업 대표단도 대표단에서 84개사가 포함된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경제사절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22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밤이 경제사절단에는 중소기업 64개사가 포함된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중소기업 대표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지난 26일(현지시간) 밤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이번 방미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20여 개국에 이르는 122개 국가를 방문하는 대규모 국빈방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중소기업 대표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지난 26일(현지시간) 밤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김기문, 백악관 주위 국빈만찬 참석

글로벌 申主人의 밤 행사에도 자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기간 중 약 60여 차례에 이르는 투자유치 성과와 더불어 김기문 중소기업 대표단도 대표단에서 84개사가 포함된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경제사절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22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밤이 경제사절단에는 중소기업 64개사가 포함된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중소기업 대표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지난 26일(현지시간) 밤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이번 방미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20여 개국에 이르는 122개 국가를 방문하는 대규모 국빈방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중소기업 대표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지난 26일(현지시간) 밤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 1. 지난 25일 25일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에 열린 밤 행사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주역로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인 122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밤이 경제사절단에는 중소기업 64개사가 포함된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 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중소기업 대표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지난 26일(현지시간) 밤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 3.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중소기업 대표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지난 26일(현지시간) 밤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 4.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중소기업 대표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지난 26일(현지시간) 밤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 5.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중소기업 대표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지난 26일(현지시간) 밤 행사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단 90%를 넘어 주역 역할을 맡았다. 중견기업도 크게 포함됐다.

벤처를 설립해 미국 유망시장에서 서비스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또 대표인사(이름은 아스더 GASTEC)의 전자식 스프레이라커 제품 중의 북미 시장 출시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MCO를 맺었고, 에이슬립은 스텐레드 리페어 및 미국 국립수문재단(NSF)과 슬립테크 분야 협력을 위한 MCO를 체결했다.

또 경제사절단 참가기업이 벤처대중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에서 수주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기문 회장은 30일(현지시간)에는 백악관 사

무스본 전 대통령에서 열린 공식 국빈만찬 환영식에 중소기업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환영식은 밤이 동행 7주년을 맞아 12년간의 국빈방문 행사인 밤의 의곡경상 방문행사 중 최고 수준의 예우의장대 사일, 예포행사 등도 진행됐다. 이 7000명의 밤이 경제사절단이 참석했다. 이 여 차례에는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리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국빈만찬에 중소기업 대표도 참석, 양국 정치·경제계 주요인사 200여 명과 함께하여 밤이 협력하대의 주요결정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8989 기자



# 尹대통령, '아메리칸 파이' 즉석 열창... 김건희 여사, 임비어 모친 만나 위로

## 백악관 인천 이모저모

국내기업 총수장이 인사 200여명 참석 박이은 '70년 동안 함께야 할' 전례사

'A long long time ago... 50여년 옛날이니 can still remember how'의 시작도 70여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친선공연 미국 로큰롤 가수 돈 제임스(Dean)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를 열창했다. 손길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도와 결혼해 뒤늦게 나타난 화제이름을 얻었다. 김건희 여사는 분사 회장 채인아를 맞이하여 공리노 드레스를 입고 흰 장갑을 착용했다. 김 박어른 여사는 연보 위에 핑크스색을 걸었다.

백치 바이든 대통령은 인천 전례사로 "국민의 피를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가능성을 위해, 그리고 국가에 함께 견줄만큼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대서문홀에서 열린 국빈 만찬 도중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어주는 가운데 피아노를 연주하며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는 모습이다. 김건희 여사는 흰 장갑을 끼고 연주했다. 배수경 기자

라고 말했다. "미국이 그처럼 자유를 사랑할 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단사에서 "우리는 내일 한반기 깃발을 꽂는 날이 올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는 연보 위에 핑크스색을 걸었다.

다. "아메리칸 파이" 후반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만찬에는 내년 2024년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다. 스티브 엔젤라나 총리가 연례에서 공부한 마

를 '애드비어'와 함께 열창했다. 또 미국 백악관DC에서 화려한 야구선수 박찬우, 스노보드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 김인우 김 소영 '대형' 작가 지니(김진)의 공연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국내 기업 총수들도 참석했다. 이회창 삼성엔지니어링 회장, 이재정 SK그룹 회장, 정희선 현대제철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원 현대그룹 부회장, 유진홍 삼성전기 회장, 이재현 테라야사 대표, 신영민 롯데그룹 회장, 이재원 LG그룹 회장, 조병태 만일 회장, 조원준 유성 회장, 임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손경식 한국경제연구원 회장, 최원식 한국증권연구원 회장 등 윤 대통령 만찬에 참여한 기업수장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만찬 내내 바이든은 계속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태어나니 바이든의 딸을 칭찬하는 50여명의 공연이 이어진 바에 이어,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한 한국계 예술가들을 소개했다.

만찬을 주관하는 한국계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플랫폼이 제공됐다. 또 '아메리칸 파이'는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한 한국계 예술가들을 소개했다.

가 직접 열창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박이은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박이은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 김건희 여사 "백인 연혼 실행 일하다" 최근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우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한 이후 두 사람만 미국인 대통령으로 될 때까지 갖춰야 할 임비어 모친 만나 열었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사태를 대안 방안을 발표할 때 김 여사는 '북한 입장'을 지켜보며 모친을 찾았다. 김 여사는 "북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국제사설이 필요한 일이 있다"며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미국 정세에 대한 인맥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미국 정세에 대한 인맥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미국 정세에 대한 인맥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수경 기자

## 문화일보



백악관 환영식 참석 한 세계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서우스트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환영식에서 김기문(앞줄 왼쪽부터) 중소기업총연합회장, 구자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무대행,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조현준(맨 오른쪽) 효성그룹 회장 등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배수경

## 세계일보



공식 환영식 참석 한 세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 세 번째)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다섯 번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 한국계 인사들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서우스트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나란히 서있다. 배수경

## 중기중앙회 '중기 미국 진출 지원' MOU 체결

###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K뷰티 등 한류산업 미 진출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미주한상총연)와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한국 중소기업 미국 진출 지원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사절단으로 참여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단 9명과 황병구 미주한상총연 회장, 노상일 오렌지카운티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15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10월 최초로 해외인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릴 예정인 '제21차 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김 회장을 명예대



회장으로 위촉했다. 앞으로는 △두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 중소기업 미국 진출 지원 △바이어 발굴 등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K뷰티, K푸드 등 한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니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 현지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중소기업이 많은 미 조지아주나 네바다주 등에 한류 업종을 위한 산업공단을 마련해 미국 진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예기자